

"우리의 미래는 행복한가?" 4차 산업혁명시대 삶의 질

일시 | 2018. 10. 27. (토) 12:30~19:30

장소 | 인하대학교 하이테크관 강당(B1층)

주최 | 한국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회 후원 | 인하대학교, 한국심리학회



- 한국발달심리학회 : 발달심리사 기타활동 2시간
- 한국사회및성격심리학회 : 범죄심리사 학회참여 3시간
- 한국임상심리학회 : 정신보건임상심리사(수련생) 학술활동 1시간 20분
- 한국코칭심리학회 : 코칭심리사 교육수련 2시간
- 한국학교심리학회 : 학교심리사 사례연구활동 1회



모시는 글

안녕하십니까?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인 가을의 한가운데에서 펼쳐지는
2018년 한국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에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한국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회 2018년 연차학술대회가 10월 27일(토)
인하대학교 하이테크관 강당에서 개최됩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우리의 미래는 행복한가?’

4차 산업혁명시대는 인공지능과 자동화의 연결성이 극대화된 지능혁명시대이며,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라는 무형의 정보를 기반으로 무인차와
VR을 사용하는 정보화혁명시대로서 놀라운 신세계가 열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까지의 물질적 풍요의 기반을 바탕으로 정신적인 위안과 풍요까지 제공하려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창의력과 빅데이터, 사회통합을 필요로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는 다가오는 미래를 두려워할 것인가?

아니면 진정한 자유로움과 평화, 행복을 만들 수 있는 창조의 기회로 삼을 것인가?
숙고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때에 이번 연차학술대회는 문화예술과 학문이 융합하여
조화를 이루어 내는 창조적인 장으로서 행복과 관련 연구 분야의 전문가들의 초청 발표와
토론, 구두발표 등을 통해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연차학술대회 개최를 위해 인하대학교와 후원해 주신 여러 단체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름다운 결실과 풍요의 계절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2018년 9월
한국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회 회장
박영신 배상

학술대회 일정

12:30 ~ 13:00 등록

제1부 13:00 ~ 15:10

사회 : 이장주 (이락디지털 문화연구소)

13:00~13:10	개회사 : 박영신 (한국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회 회장) 축사 : 조명우 (인하대학교 총장)
13:10~14:30	연극공연 : 해피아이 제목 : 행복한 미래를 꿈꾸다! '신입사원'
14:30~15:10	구두 발표 제 1발표장 001호: 사회 문은식 (강원대) 제 2발표장 002호: 사회 이상란 (인하공업전문대)

제2부 15:10 ~ 17:10

사회 : 주경필 (한국방송통신대)

15:10~16:20	초청발표 최봉영 (항공대) – 한국인에게 행복은 무엇을 말하는가? 송관재 (연세대) – 혼자서 더불어 어느 것이 더 행복할까? 김경일 (아주대) – AI와 인간의 연결: AI, 인간 행복의 장애물 vs. 조력자
16:20~17:00	토론 좌장 : 정일환 (대구가톨릭대) 한규석 (전남대), 서경현 (삼육대), 김범준 (경기대)
17:00~17:10	휴식시간

제3부 17:10 ~ 18:30

사회 : 최종숙 (인하대)

17:10~18:00	Classic Concert : 현악4중주 공연 (Man on the String)
18:00~18:10	박정현 우수논문상, 정태곤 소장학자상 시상식
18:10~18:20	정기총회 (차기회장 선출)
18:20~18:30	행운권 추첨 및 폐회사
18:30~20:00	저녁 만찬

※ 행운권 : 구두발표장 001호, 002호에서 받을 수 있음.

주제: “우리의 미래는 행복한가?” 4차 산업혁명시대 삶의 질

“한국인에게 행복은 무엇을 말하는가”

한국인이 생각하는 행복이라는 개념이 어떠한 바탕을 갖고 있는지 묻고 따지고 풀어서 차려보고자 한다. 행복하게 살아 보고 싶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최봉영
항공대학교 교수

“혼자와 더불어, 어느 것이 더 행복할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개인은 사회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유대감은 인간의 행복에 주요요소로 가정해 왔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솔로의 시대에 인간은 혼자서 행복할 수는 없을까? 개인은 혼자 있으면 고독해지고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것일까? 사회 환경은 달라졌는데 기존의 사회심리학적 이론들을 달리 해석해 볼 수는 없을까? 혼자와 더불어 어느 것이 더 행복한 것인지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송관재
연세대학교 교수

AI와 인간의 연결: AI. 인간 행복의 장애물 vs. 조력자

“인간은 오감을 통해서 분석과 판단을 한다. 그리고 행복은 그 오감의 영역을 통합해 경험해야 하는 긍정적 상태다.

최근의 AI는 우리의 오감을 연결시켜 육감을 완성시켜 줄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보게 한다.

이 두 중요한 흐름을 통합해 인간 행복의 장애물이 될 수도 혹은 조력자가 될 수도 있는 AI의 미래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김경일
아주대학교 교수

토론자



좌장 :정일환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한규석
전남대학교 교수



서경헌
삼육대학교 교수



김범준
경기대학교 교수

연극 공연 제목

행복한 미래를 꿈꾸다! '신입사원'



- 작 : 서문하 외 극단해피아이 공동창작
- 연출 : 최미라
- 출연 : 인경훈, 신철연, 박성준, 홍승아, 이지은, 임상열 외 3명
- 제작 : 극단 해피아이
- 러닝타임 : 70분

1. 공연 내용

미래사물 인터넷이 보편화된 시대에서 대기업(미산상사)는 인간의 기능을 완벽히 구현하는 안드로이드 로봇(AI 안파고)을 개발하여 시험에 들어간다. 이 로봇은 인간과 똑같은 외모를 갖고 있으며 인공지능으로 인간의 모든 감정을 갖고 있고 일처리를 한다. 이 로봇의 첫 임무는 신입사원으로 위장하여 대기업(미산 상사)입사시험에 통과하고, 인간과 같은 일을 맡아 처리한다. 1년간 로봇임을 들키지 않고 회사에 적응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 개발된 로봇이다.

대기업(미산상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다소간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합리성과 논리적 사고에 최적화된 인물들이다. 기술의 최첨단을 달리는 기업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들의 업무 수행에 불필요한 감정들은 스스로 약화시키거나 숨기거나 제거하면서 살아간다. 이 속에 여러 신입사원 중 한명 A(안파고)가 섞여 있다. 또 한명의 신입사원 안도로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 A(안파고)이상의 뛰어난 업무 능력을 보인다. 같은 부서의 이차장은 동료들에게 인간성을 강조하며 늘 인간적으로 후배들을 독려하나 신입사원(안도로)보다 그저 그런 업무능력으로 상사로부터 질책의 대상이 되고 실직의 위기에 처하게 되자 점점 인간미를 잃어간다.

결국 뛰어난 업무능력을 보여주는 안도로 신입사원에게 하나 둘 프로젝트를 빼앗기게 되고, 해고 통지서를 받은 이차장은 신입사원(안도로)가 안드로이드 로봇 A(안파고)라고 착각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

2. 연출의도

1차, 2차, 3차 산업혁명 등등을 거치면서 우리 인간들은 '인간성' 소외에 대해 걱정을 하였지만, 순차적으로 시대흐름에 적응하면서 더 많은 생활의 편리함을 누리게 되었다.

앞으로의 4차 산업혁명의 사회는 인간의 편리함을 추구하기에 훨씬 전문적이며 복잡한 사회가 될 것이고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종류의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4차 혁명의 적응 기간 동안 우리에게 가장 먼저 닥쳐올 문제로 부각된 것이 일자리 감소이다. 이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인간이 가진 여러 가지 감정들은 버려지거나 억제될지도 모른다. 즉, 인간미가 점점 없어지는 세상이다.

이러한 4차 혁명의 시대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인간중심의 지능정보사회 구현과 기술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윤리준칙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간이 어느 곳에서 상처를 받고, 어느 곳에서 위안을 받는지를 고찰하고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인간성'의 소중한 가치를 스스로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3. 극단 '해피아이' 소개

2004년 “행복한 나[Happy I]” ‘내가 행복해야 우리 모두 행복해 질 수 있습니다...’ 라는 의미로 극단 해피아이를 창단하여 힘든 세상에 지치지 않고 꿈을 이뤄 가는 사람들, 세상을 살맛나게 살아가는 다양한 사람들, 웃음으로 세상을 밝게 만드는 사람들을 찾아 그분들의 이야기로 재미있는 무대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Man on the String

Classic Concert 현악4중주

Man on the String은 4명의 남자연주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현악중주팀으로, 음악을 통해 관객들이 행복함을 느끼고 연주자와 관객이 서로 소통함으로써 함께 감정을 공유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해설이 함께 진행되는 특징).

프로필



1 바이올린
이기준

- 강원대학교 문화예술대학 음악학과 졸업
- String&Friends 단원
- 하바스트링앙상블 단원
- 춘천시립교향악단 상임단원
- Man on the String 단원



2 바이올린
이도영

- 강원대학교 문화예술대학 음악학과 졸업
- 독일 트로싱엔 국립음대 석사(Master) 졸업
- String&Friends 단원
- 이탈리아 "Citta di Barletta" 국제콩쿨 2위
- 일본대사관 주최 음악연주제 1위
- Man on the String 단원



비올라
이흥우

- 강원대학교 문화예술대학 음악학과 졸업
- String&Friends 단원
- 춘천시립교향악단 상임단원
- Man on the String 단원



첼로
이기석

- 강원대학교 문화예술대학 음악학과 졸업
- String&Friends 단원
- 앙상블 "Co-men" 단원
- Man on the String 단원

연주곡

1. Divertimento- W.A Mozart

'Divertimento'의 뜻은 '즐거다'라는 뜻의 이탈리아 말로 귀족들의 파티 등에서 흥겨운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연주되던 곡임.

2. Humoreske - A. Dvorak

드보르작의 <유모레스크>는 미국 국립음악 원장으로 재직 중 휴가차 들린 고국(체코)에서 작곡했으며 아름다운 가요풍의 멜로디와 애수를 띤 가벼운 무도풍의 곡임.

3. Traumerei- R.Schumann

트로이메라이란 '꿈꾸는 일' '공상' 등을 뜻하는 말로, 슈만의 '어린이의 정경' 중 7번째 곡이며, 아내 클라라와의 사랑으로 행복할 때 작곡한 곡으로, 어린이의 따뜻하고 소박한 꿈을 표현한 듯 잔잔하고, 평화로움.

4. Salut D'Amour(사랑의인사) - E. Elgar

5. Morning mood - E.Grieg

에드워드 그리그가 작곡한 '페르킨트 모음곡' 중 제1곡 아침의 기분(Morning Mood), 배를 타고 장사를 다니던 중, 모로코에서 맞은 아침 일출의 기분을 묘사한 음악입니다. 아침 해가 뜨는 듯한 부드럽고도 활기를 주는 곡임.

6. The Entertainer- S.Joplin

Rag Time (Jazz)로, 흑인이 백인의 악기와 백인의 화성학 이론을 받아들이면서 발전한 음악장르로서 'The Sting' 영화의 Ost로도 쓰였음. 밝고 신나는 것이 특징임.

7. Positive Energy

제목 그대로 '긍정 에너지'의 분위기를 담고 있는 신나는 곡임.

학술대회 안내

1. 등록

- 사전등록 : 회원 30,000원 / 비회원 35,000원 / 중고등학생 25,000원
[사전등록 기간 : 9월 3일(월) ~ 10월 7일(일)]
- 현장등록 : 회원 40,000원 / 비회원 45,000원 / 중고등학생 30,000원
※ 사전등록은 ① 참가비를 아래 계좌로 입금하신 후 ② 학회 홈페이지의 '학술대회 접수'에 입력하고
③ 사무국 이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등록을 하시는 분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 ※ 현장등록 시 자료집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2. 사전등록 입금 및 입금처

- 계좌이체
입금계좌 : 국민은행, 660401-01-817950 [예금주 : 손주연(문화및사회문제)]
※ 계좌이체 입금시 '홍길동 - 사전'의 형식으로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문의 및 접수처

- 홈페이지 : www.kpacsi.or.kr
- 전화번호 : 사무국 간사 신미자 010-7668-5571
- 이메일 : kpacsi@daum.net

4. 환불규정

- 100% 환불 : 2018. 10. 7(일) 까지
- 50% 환불 : 2018. 10. 8(월) ~ 10. 13(토)
- 환불 불가 : 2018. 10. 14(일) 부터

5. 구두 발표 신청 안내

- 1) 신청방법 : 홈페이지에 사전등록 후 구두신청서를 이메일(kpacsi@daum.net)로 제출.
※ 비회원은 회원 가입 후 제출 가능함.
- 2) 구두 발표 신청 및 심사 일정
 - 구두 발표 신청 서류 : ① 발표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② A4 2매 이내의 초록
(양식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
 - 구두 발표 신청 기간 : 9월 3일(월) ~ 9월 21일(금)
 - 구두 심사 결과 발표 : 2018년 9월 29일(토)
 - ※ 심사결과는 **개인 메일로** 통보됩니다.

6. 정태곤 소장학자상 응모 안내

- 1) 시상목적 : 학술 및 연구 분야에 대한 전문성 함양 및 우수한 인재 발굴
 - 2) 시상내용 : 정태곤 소장학자상 1명, 상장 및 상금 수여
 - 3) 응모자격 : 한국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회 회원으로서 심사용 논문의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지 만 3년을 초과하지 않은 자
 - 4) 응모기간 : 2018년 9월 21일(금)까지
 - 5) 응모방법 : 지도교수 추천서 1부(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양식 탑재)
심사용 박사학위논문 1부 (kpacsi@daum.net)로 파일 전송
- ※ [박정현 우수논문상] 2017년 한국심리학회지: 문화및사회문제 23권 1호~4호에 게재된 논문 중에서 우수논문 1편을 선정할 예정임.



사진전 안내

『Patagonia & Inca』Photo Show

파타고니아(Patagonia)에 대하여 들어보셨나요? 잉카(Inca)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지요. 이번 사진전시회의 주제는 '파타고니아'와 '잉카'입니다.

두 주제는 남아메리카(South America) 지역과 관련이 있다. 파타고니아는 지역을 지칭하는 용어로 아르헨티나와 칠레의 남쪽 지역을 말한다. 파타고니아에서 볼 수 있는 광경은 지구의 최북단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만년설(perpetual snow)과 빙하(glacier)가 있는 이유는 칠레와 아르헨티나의 경계에 놓여있는 안데스 산맥(Andes Mountains)이 있기 때문이다.

'잉카'는 남아메리카 안데스 지방의 문명을 형성했던 인디오이다. 안데스산맥 고산족에 해당되는 잉카족은 페루(Peru)의 쿠스코(Cusco)를 수도로 끊임없는 정복전쟁을 통해 남으로는 칠레 남부, 북으로는 콜롬비아 서남부까지 뻗어나갔으며, 잉카제국에는 잉카문명이 있다.

이번에 전시되는 사진의 촬영지는 23일과 21일 두 차례 잉카제국의 수도 쿠스코, 티티카카호수가 있는 페루, 우유니(Uyuni) 소금 사막이 있는 볼리비아, 만년설과 빙하가 살아있는 파타고니아의 칠레와 아르헨티나 지역으로 직항편이 없어 미국이나 유럽을 경유하여 20여 시간 비행을 하여야 한다.

남미를 마지막 여행지로 꿈을 만큼 먼 거리에 위치한 곳을 두 번이나 다녀온 이유는 여행지를 선정할 때 문명이 시작된 곳을 보고 싶어서이며, 오지의 모습과 그곳에 사는 고산족들을 만나 삶을 이야기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Patagonia & Inca』사진전을 통해 남미의 아름다운 자연, 그곳에 가야만 볼 수 있는 장면, 세계적인 트레킹 코스를 가진 파타고니아의 풍광을 어설뜨게나마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진을 보면서 마음의 치유를 돕는 Photo Therapy의 새로운 면을 보여주고 싶었다.



Travel Photographer
Dr. Yun Young Jin



〈파타고니아 아르헨티나 피츠로이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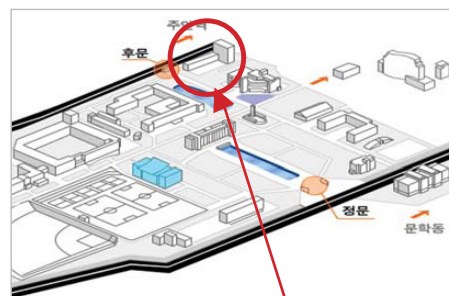
〈칠레 북부 아따까마 사막에서 만난 라마봉〉



〈파타고니아 칠레 토레스델파이네〉



약도 및 찾아오시는 길



하이테크 강당(B1층)

찾아오시는 길 인천광역시 남구 인화로 100 인하대학교 하이테크 강당(B1층)

- * 지하철 - 지하철 1호선 주안역 - 51번 마을버스, 5-1번 시내버스 - 지하철 수인선 인하대역, 도보 6분
- * 버 스 - 마을버스 : 511번(주안역), 512번(제물포역) - 시내버스 : 5-1번, 8번, 13번, 27번, 41번, 9번
- 급행간선 : 908번(송도 신도시 공영차고지) - 광역버스 : 1601번(서울역), 9200(강남역)

※ 할인 주차권 구입 가능 (4시간 : 2000원, 종일 주차권 : 4000원)